
한국형 안전체험관 설립에 관한 기본설계 방안

김 테 환 교수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한국형 안전체험관 설립에 관한 기본설계방안

2005. 8. 26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 김태환
(사회안전연구실)

-목 차-

I. 서론

1. 배경
 - 1-1. 안보교육 및 종합안전교육시설의 필요성
 - 1-2. 체계적인 안전체험시설의 필요성
2. 체험관의 설립목적

II. 여건분석 및 사례조사

1. 이용자 요구분석
 - 1-1. 안전체험시설의 필요성과 문제점
2. 국내외 유사사례
 - 2-1. 국내 안전교육시설
 - 2-2. 해외 안전교육시설
3. 사례분석을 통한 방향설정

III. 기본구상

1. 기본방향
2. 이용객 수요 추정
3. 교육 및 전시 프로그램 구상

IV. 관리운영계획

1. 운영 계획
 - 1-1. 운영의 기본방향
 - 1-2. 관람객 이용특성에 따른 관람 동선

V. 결론

관련자료

I. 서론

1. 배경

1-1. 안보교육 및 종합안전교육시설의 필요성

선진 외국은 일찍이 교육개혁법에 안전교육의 필요성과 목표를 명시하고 교육과정에 이를 포함시켜 조기 안전교육의 생활화를 실천하고 있다.

특히 광활한 대지와 다민족국가 그리고 테러의 위협 등 다양한 재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노출된 미국은 국가차원에서 안전관련 재정을 지원하고 교육시설을 상시 안전 점검하며, 주별·학교별로 학부모·자녀를 위한 안전교육자료를 개발해 정규 교육과정에 활용하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 또한 90년부터 초등학교부터 중·고교까지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체험·실습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일본은 지진과 풍수해가 많은 지리학적 영향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보고 있어 각 지자체별로 각각의 안전체험관(160개 이상)을 두어 참가가 아닌 참여형식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안보교육 및 안전교육의 정확한 숙지를 위해선 체험식 교육방법이 효과적이란 것을 선진사례에서 확인되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국민전체에 대한 안전체험프로그램 및 체험공간 시설물이 종합적으로 구성된 안전체험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1-2. 체계적인 안전체험시설의 필요성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에서부터 안전사고와 범죄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최근 발생한 대구지하철 참사에서 보여지듯이 대형참사의 근본원인은 「안전수칙 미준수」, 「관리자의 부주의」, 「책임의식의 결여」, 안전과 관련한 가치관의 부재에서 유발되었으며 이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전반적인 인명경시 풍조, 안전무시, 무사안일주의, 이기주의 등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있었으나, 안전교육의 미비, 안전불감증 등의 원인이 가장 크다.

그러므로,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종합안전교육을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각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테마별 안전 체험관 건립을 위한 제안을 목적으로 우리의 안전교육 시설현황과 외국과 비교하며 안전체험시설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저 한다

2. 체험관의 설립목적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 유발요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파악하고, 안전한 이용방법과 관리요령 등의 정확한 숙지가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안전에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및 시설물이 종합적으로 구성된 안전교육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이러한 종합적인 안전 교육시설이 국내에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또한 안전 교육시설은 현장

체험적이고 때로는 흥미요소를 가미한 상호작용적 교육을 가능케 하는 교육시설로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교육시설을 건립하고 이 곳을 대 국민 안전의식의 제고는 물론 안전의 생활화를 확산시켜 방재행동력을 향상시키는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안전교육이라는 것은 이론적인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보다 효과적인 교육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인 면이나 시간적, 공간적인 여러 가지 제약을 안고 있는 정규교육기관에서는 이러한 일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르므로 결과적으로 안전만을 전담하는 체계성을 갖춘 교육시설의 건립이 절실하게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 가족단위 또는 개인별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보고 듣는 형식적 교육이 아닌 만져 보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공간 구성
- 각 유형별, 연령, 전문별 프로그램 도입
- 교육성의 극대화를 위한 재난의 다양한 체험공간 마련
- 관람객 적극 참여도를 높이는 "실전체험교육장" 마련

II. 여건분석 및 사례조사

1. 이용자 요구분석

1-1. 안전체험시설의 필요성과 문제점

1) 주입식 안전이론교육에서의 탈피

안전사고 관련 교육은 국민안전조사 결과 2명 중 1명이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 실내이론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체계적인 현장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절대적이다.

이론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실천이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받는 10번의 안전교육보다는 단 1번의 실천이 보다 효과적인 교육기대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도 평상시의 몸소 경험해 본 바라 할 것이다. 이렇듯 실전 체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2) 적극적인 안전 생활화 정립

학교를 비롯한 정규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은 정적이고 시공간상의 제약 조건도 많아 교육 자체에 대한 불만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몸소 실천을 통한 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평상시 간과하고 지내던 생활 주변 시설들에서의 안전 요소를 확실하게 인지하게 되고 안전 요소들을 주지하게 됨으로써 평상시 생활에서의 안전 습관화를 도모할 수 있다.

3) 체험을 통한 자신감 확립

안전사고 발생시 간단한 응급처치라도 평상시 체험해 보지 않은 경우라면 신속하고도 정확한 응급행동이 나오기가 어렵다. 이에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응급대처 방법에 대한

현장체험교육을 경험한다면 재해·재난 상황에 맞닥뜨렸을 경우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기대처 행동 후에, 앞으로는 어떤 상황 하에서도 올바르게 대처,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2. 국내외 유사사례

2-1. 국내 안전교육시설

국내에는 안전을 주제로 일반시민에게 종합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지 정부산하 안전관련 공영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홍보관 및 전문가 교육시설, 일부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교육홍보관,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교통공원 등이 있을 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 전문 시설의 사례는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1) 국내 교통안전 사례

기 관 명	개관	면적(평)	공사비	시설	시 설 현 황
도로교통안전협회홍보관 (서울시 중구 신당동)	1989	344평	4억	실내	운전적성검사시설, 운전실습시뮬레이터, 영상관, 자동차내부 작동실물모형, 교통표지판
삼성화재스타지오교통나라 (부산시 북구 오룡동)	1996	313평	45억	실내	시뮬레이션, 빔프로젝트 시스템, 3D-TRIVISION, 실물 및 모형전시
서울 어린이 교통공원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1983	3,900평	16억	실외	운전연습장, 교통교실, 신호등, 교통표지, 횡단보도, 건널목, 지하도, 고가도로, 육교
인천 중앙 어린이 교통공원 (인천시 남구 관교동)	1993	4,000평	4억	실외	교통안전만화영화상영, VTR시설, 터널, 철도건널목 고가도로, 육교, 휴게광장, 어린이 놀이터 교통표지판
광주어린이 교통공원	1998	17,333평	55억	실내/ 실외	슬라이드, 시뮬레이터, 게임기, 전시관, 강의실/회의실, 횡단보도, 철도건널목, 지하보도, 자전거주행코스, 소형자동차주행코스, 교통표지판
부천 어린이 교통공원	2002		16억 (전시)	실내/ 실외	교통의 역사, 나는 자동차 모형, 사고디오라마, 어린이 6대사고, 야간시 사고유형, 우천시 사고유형, 응급차 종류 3가지와 인물모형, 안전벨트 체험, 모터카, 차량신호기, 노면표시, 철길건널목, 터널, 교통안전표지판, 놀이터, 사고사례 안내판, 보행자 신호등, 경고등, 퍼즐놀이판

2) 국내 안전교육장 사례조사

기관명	개관	면적(평)	공사비	시설	시설현황
송파 어린이 안전공원	2001	900평	16억	실외	공동주택(베란다, 전기안전), 단독주택(가스안전), 불안이네(전기안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불법건설빌딩, 안전건설빌딩, 슈퍼, 안전이네(가스안전), 빵집(간판안전), 교통도로표지판, 안전유치원, 건설현장,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소방서(소화기 실습), 전화박스, 병원, 트럭, 교량붕괴, 건물붕괴, 타잔놀이, 종치기, 계단오르기, 안전벨트 실습 차량, 평가게임
서울 시민안전 체험관	2003	1,800평	200억	실내	지진체험, 풍수해체험, 소화기체험, 연기피난체험, 응급구조체험, 구조구난체험, 119신고체험, 전문인체험, 재난영상관, 생활안전체험, 방재라이브러리, 산악구조, 종합오리엔테이션

2-2. 해외 안전교육시설

외국의 안전관련 체험관은 일본 등의 예에서 보듯이 빈발하는 지진 등의 재해 대책 거점 시설과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 체험시설로서 전국의 주요 도시에 총 170여 개가 설치되어있는 전시교육시설로서 지역주민의 방재행동력을 교육 훈련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이 실시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들은 주로 지진과 그로 인한 화재에 관련된 것들에 치우쳐 있으며 곳에 따라 풍수해 등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자연재해 대처 프로그램이 운용되고 있으며 우리의 안전교육에 반하여 매우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를 하고 있다.

한편, 엄격한 안전기준으로 유명한 미국과 유럽지역에 있는 안전교육기관들은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주로 그 대상을 안전관련종사자에 초점을 맞춘 전문 교육과정을 운용하고 있으며 주제도 특정한 하나의 주제를 밀도 있게 다룬다. 희소하나마 어린이와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안전마을(Safety Vill)의 교육프로그램들은 주로 교통안전과 생활안전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 대중 교육적 개념 측면에서 안전에 기여하는바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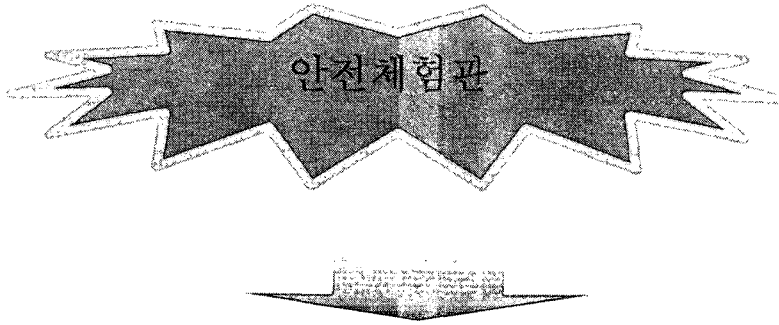
1) 국외 교통공원 사례조사

		미국 (Safety Village IOWA City)	캐나다 (Kid's Safety Village)	캐나다 (Peel Children's Safety)	독일	일본
센터면적 및 시설물	설립연도	1994년	1995년	1994년	1960년	-
	면적	1,000평	2,500평	2,500평	760평	70,000평
	건립비용	-	-	\$1.1million	2,500	-
	시설물	40개 건물, 시설물 등	모형빌딩, 안전시설물 등	-	교육동 1개 및 시설물	교차로, 횡단보도 등 모형 도시
운영주체	운영주체	주정부 및 민간	-	각 시도	각 시도/공단	공공단체
	예산	-	-	후원금/수익금 \$75,000~100,000	교육당 100마르크 자원	12억엔 후원 (선박진흥원)
	교육담당	자원봉사자 20명	경찰	여경 2명, 행정 4명	경찰	전문강사 11명
운영방법	교육대상	5~7세	초등학생	-	6~12세 (10세 의무)	유아~중등
	프로그램	2주간 캠프	도로 및 보행자 도로 건너기	비디오/모형자동 차 운전/인터넷	자전거/도로횡단/ 신호등	비디오/도로/ 시뮬레이션
	운영방법	1인당 \$50	월~ 금 7:30~15:30	무료	-	어린이 100엔 어른 250엔

2) 국외 안전교육장 사례조사(일본)

기관명	개관	면적(평)	공사비	시설현황
시즈오카현 지진방재센터	1989	955평	870억	방재미니극장, 생활속의 위험코너, 지역위험도코너, 지진체험코너, 소화코너, 연기탈출코너, 신고코너, 구조구급코너
혼조도민 방재교육센터	1995	2,000평	210억 (시설비)	수해체험코너, 위험낙하물코너, 고층 주택의 지진피해코너, 백화점 방재설비, 지진체험코너, 소화코너, 연기탈출코너, 신고코너, 구조구급코너
이께부끄로 도민방재 교육센터 (일본 동경)	1986	650평	80억 (시설비)	소방설비, 빌딩방재, 연기체험, 신고, 구급, 지진체 험 등의 코너로 구성
다찌가와 도민방재센터 (일본 동경)	1995	1,600평	920억	3D극장, 소방서, 풍수해체험, 발견코너, Q/A코너, 시청각실, 응급코너, 지진코너, 연기탈출코너, 소화 코너

3. 사례분석을 통한 방향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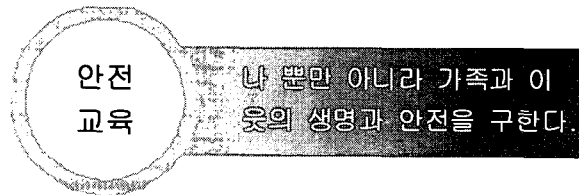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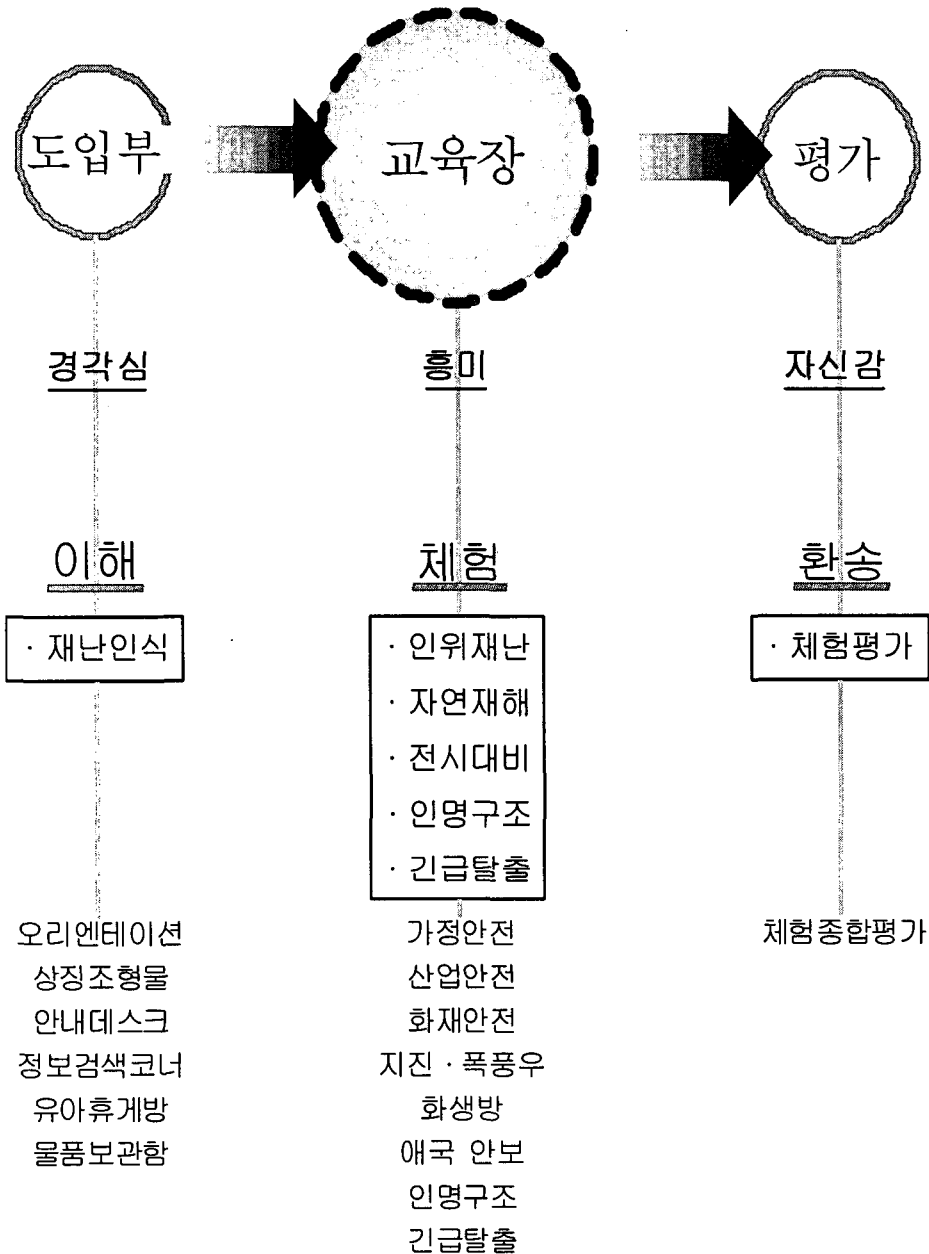
- 종합안전 체험장으로서 테마파크화
- 지역적 특성을 가미한 유형별 안전 교육장 특화
- 수익성을 확보한 자생력 있는 관리시스템

Ⅲ. 기본구상

1. 기본방향

체험식 안전교육을 통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2. 이용객 수요 추정

"안전체험관"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안전의식의 계몽적 차원의 교육체험기관으로 방문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모든 운영프로그램을 구성해야한다. 따라서 가급적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시설 및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학교단체와 일반 가족관람객을 유인하는 테마전시관이 되어 건전하고 교육적인 자유학습의 장이자 여가선용의 장으로도 그 구실을 하여야 한다.

2-1. 학교 단체

- ▶ 어린이·청소년 : 학교 단체 방문객은 인근지역 유아부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까지를 말한다. 이들을 포함한 학생의 단체견학은 각 시도 및 안전교육기관의 협조 하에 연간 방문예약을 통하여 일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 ▶ 학교단체의 견학은 통상 오전에 집중되며 소요시간은 3시간을 넘기기 어렵다. 따라서 운용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단체방문객에게 강요할 수는 없으며 여러 개의 코스로 만들어서 일부코스를 선택하여 체험토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재 방문의 여지를 남기게 되어 차후 재 방문을 적극 유도한다.
- ▶ 단체가 방문하지 않는 날은 체험시설의 정기휴일, 휴관일(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그리고 방학기간 중으로 나타난다.
- ▶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정하여 휴일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시설보수정비 등을 하기 위해서이며 일반사무직과 체험교육 시설 운영직의 휴일을 이원화하여 전자는 평상근무체제로 하고 후자는 체험관 휴관일에 맞추어 근무하도록 한다.
- ▶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은 지역 내 학생단체가 최소한 1회씩 방문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3년마다 새로운 내용을 추가 또는 대체하여 항상 새롭고 심도 있는 학습거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 일반성인 교육생(소방 및 산업, 건설안전관리자와 민방위대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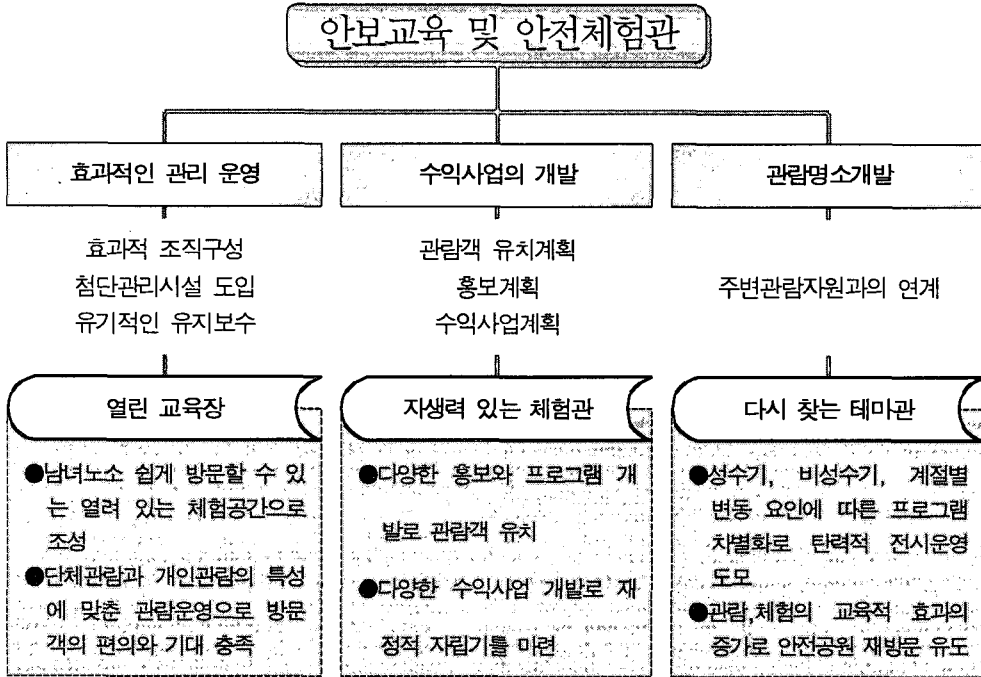
- ▶ 실내 이론 교육과정과 실외 훈련교육과정 시간을 고려하여 체험관에서의 관람 시간은 최대 3시간으로 산정 한다. 각 체험 시설은 실외 훈련과정과 연계성을 감안하여 모두 체험하도록 구성한다.
- ▶ 교육생의 관람 방문일은 지역 단위 민방위 훈련 일정 등을 고려하여 연중 분산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관람일도 그에 따르기로 하며 체험관에 관람 일정이 없는 날은 정기휴일, 휴관일(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로 나타난다.
- ▶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정하여 휴일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시설보수정비 등을 하기 위해서이며 일반사무직과 체험교육 시설 운영직의 휴일을 이원화하여 전자는 평상 근무체제로 하고 후자는 체험관 휴관일에 맞추어 근무하도록 한다.
- ▶ 일반인 훈련일정에 근거하여 이용객 수요를 추정해 보면 한 개 지역에서만 1,740명(민방위대원) 정도이나, 시설 계획 완료시 여타 지역에서의 방문훈련을 고려하면 훨씬 많은 교육생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도 실내·외를 모두 고려하여 새로운 내용을 추가 또는 대체하여 항상 새롭고 심도 있는 학습거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교육 및 전시 프로그램 구상

구분	전시구분	코너명	전시 및 교육내용
진입	도입부	인포데스크	안전관련 홍보물
		상징조형물	시설이용안전교육 및 안전체험관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알리는 조형물
		영상실	우리 나라 안전분야별 재난·재해 발생 현황(영화·VTR상영, 사진전시)/ 방재체계
재해	자연재해	지진체험실	시뮬레이터 설치하여 강도별 지진체험/ 지진발생원인 및 현황/ 지진 일반 상식
		풍수해체험실	시뮬레이터 설치하여 폭풍우를 강도별로 직접 체험
		종합평가실	재난상황 대응요령을 체험한 내용을 토대로 평가 실시
생활	인위재난	생활안전실	누전으로 인한 화재시연/ 저전압·저전류 이용 감전 사고 체험/ 전기·가스 안전 사용법 실습
		단순안전사고 예방실습실	미끄러짐, 끼임, 타박 등 실내에서 발생하는 단순사고 체험 및 예방조치요령 습득
		산불예방 및 화재시연실	산불예방 및 대처요령/주요 붕괴 시설물 모형 및 사진 전시/ 시설 구조물의 위험 요인 설명패널/ 가스 등 폭발성·발화성 위험물질의 폭발 시험 시연
		화재안전실습실	소화기 및 소화전 실습
			유형별(가정, 호텔, 극장, 학교, 산불 등) 화재 대피훈련(연기, 암흑, 열기)
			소화장비 전시, 이해
신고요령실습실	긴급상황별 신고요령실습		
전시	전시대비 (강원도 : 지역별 특성 고려)	전시국민 행동요령실습실	경보장비 전시 및 경보 종류 습득/ 비상용 물품 구비 등 전시행동요령 숙지
		화생방실습실	핵·화학무기 위협의 실상 영화 상영/ 방독면, 보호의 등 착용 실습
		애국·안보의식 고양실	"북한의 실상"등 VTR상영/ 안보자료/ 우리나라 외침 및 고난의 역사 특강 실시
		대공실습	간첩식별요령을 알아보고, 피해사례를 체험
응급	구조구난	구조구난	인명구조장비(완강기, 로프총, 구명환 등) 전시 붕괴되고 화재가 발생한 건물을 안전하게 탈출하는 요령체험
		응급구조	심폐소생술, 골절, 탈골환자 처치법, 지혈법 등 실습인체구조 모형 전시

IV. 관리운영계획

1. 운영 계획(강원도에 설립시)



1-1. 운영의 기본방향

안전체험관의 운영방침은 비정규교육기관으로서 학교나 전문교육기관과 같은 정규교육기관에서 할 수 없는 즉, 시공간적으로 비형식적인 입체적인 교육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는가에 관건이 있다. 따라서 크게 전시와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관람객서비스 세 가지 면에서 운영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1) 전시 시설물

실제를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생동감 있고 상호 작용적이며 체험적인 전시를 통하여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을 숙지시킨다. 즉, 안전체험장은 상호작용적 전시로 구성되어 관람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전시물을 조작, 탐색하고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를 통해 스스로 내용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공간으로 가족 및 일반의 자유관람과 안내자에 의한 투어도 가능한 일반적인 전시관과 유사한 운영이 가능하고, 예약단체 및 현장에서 인원별로 결성한 단체를 대상으로 마련되어진 여러 코스 중에서 택일하여 안내자의 감독에 따라 실습하는 적극 참여식 전시교육공간으로서의 대상에 따른 교육의 심

도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도 있다.

2) 교육프로그램

안전체험관의 상설 체험코너를 이용한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참여식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과 더불어 살아있는 안전체험관으로서 역할을 한다.

전시가 하드웨어적인 개념이라면 교육프로그램은 다양한 관람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소프트웨어의 개념이다. 따라서 안전에 대한 일반적인 의식고취차원에서의 실습프로그램에서부터 심도 있는 대처훈련프로그램까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실현이 가능하다. 단, 전문 교육시설을 요하는 전문교육프로그램은 차별화 할 수 있도록 한다.

3) 관람객서비스

여러 유형의 관람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신속히 제공하고 문제에 능숙하게 대처함으로써 편안하고 효율적이며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람객서비스는 자칫 획일적이고 고정적인 운영을 초래하는 단일함을 탈피하여 항상 관람객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다양한 방법으로 모니터하고 개선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관람객 우선주의 운영은 인건비의 상승 등으로 인한 상대적으로 무거운 자금부담을 수반하지만 관람객의 재 방문을 유도하는 열쇠는 관람객으로 하여금 훌륭한 교육내용을 가능한 한 편안하고 자유롭게 접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운영자의 사명감이 희생으로 배어 있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상의 세 가지 서비스는 안전체험관의 입장과 시설이용을 공동목적의 적정요금으로 유료화 하는 방법을 통하여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전체운영예산은 정부지원 예산, 운영수익, 유관기관 지원금으로 충당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관람객 이용특성에 따른 관람 동선

가. 강제동선에 의한 관람

한정된 시간에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관람객들에게는 전시관의 잘 정비된 안내시스템에 맞추어 관람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심적으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전시관 운영자 측면에서도 통제가 잘되어 편리한 운영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의 박물관 및 여러 전시관에서는 강제동선에 의한 관람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극복될 수 있다면 관람대상에 대한 선택권을 관람객에게 부여하여 너무 수동적인 경험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교육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나. 자유동선에 의한 관람

교육적 목적의 전시가 발달된 선진국에서 많이 채택되고 있는 관람형태로서 관람객들의 선택과 그에 대한 상호작용을 극대화하여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경험을 추구한다. 운영자 보다는 이용자측면에서의 편리성이 중시되므로 다수의 관람객이 붐빌 시에는 통제가 어려워져서 다수의 운영요원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단체보다는 가족 관람객에게 더 적합한 형태로서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학습을 가능케 한다.

다. 따라서 안보교육 및 안전체험관의 관람유형은 한번에 모든 것을 강제적으로 관람케 하는 강제동선과 완전한 자유동선과의 절충형으로 해서 각각의 장점을 관람객의 성격과 필요 조건에 최대한 부합시켜야 한다. 즉, 평일과 휴일의 관람 유형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특성을 반영하여 주중에는 단체위주의 강제동선으로 하되, 하루에 시설물을 다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다양한 코스를 만들어 관람단체로 하여금 선택토록 하고, 주말에는 체험영역을 완전 자유개방영역과 안내원 동반 체험영역으로 구분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 주도록 한다. 이때 안내원 동반 체험 영역 역시 몇몇 코스를 선정하여 심도 있는 체험을 선택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V.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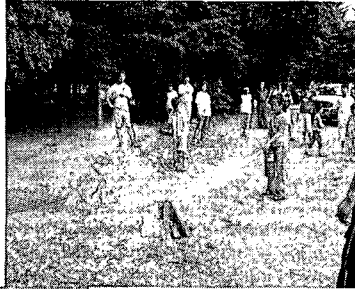
우리 나라는 전후 낙후된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국가정책 결정자들이 안전정책을 뒤로 한 채 경제 부흥 위주로 국가정책을 이끌어 온 결과, 빨리빨리 문화가 뿌리깊게 정착하게 되어 안전 불 감정을 낳고 있으며, 대형 사고나 재난, 재해가 발생 할 때마다 예방이나 대응체제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재난, 재해나 사고를 경험하면 사람은 누구보다도 이런 참사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에 전념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에서 겪는 참사의 비극은 발생 빈도로서는 많지 않기 때문에 사회전체로서는 체험한 사람이 적고, 비극의 아픔이 점점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간다. 결국 피해 당사자나 비참한 경험을 한 사람은 생각하고도 싶지 않은 사실일지는 모르지만 인간사회에 있어서 귀중한 체험이면서 그 안에 숨어있는 중요한 사실이 잠재되어 있어 보다 나은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재산으로서 활용하지 않으면, 또 다시 참사가 악순환 되는 사회에서 탈피하지 못한다.

우리가 앞으로 후 세대를 위하여 남겨두어야 할 것은 선진 외국이 지난 몇 수십 년, 수 백년 동안 각종 사고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어릴적 부터의 안전교육을 실습과 체험적 공간을 통해 훈련이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던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안전사항에서 부터 반복적, 체험적교육을 통한 백년대계의 안전틀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전체험관의 건립은 그 당위성이나 건립을 필요성을 원하는 국민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자유롭게 체험관을 방문하여 안전문화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국민 속에 잘못 뿌리박힌 안전문화 불감증을 단계적으로 치유해 나가게 될 것이다. 건물규모 면에서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볼 때 미국의 소방박물관이나 독일의 직업건강안전전시관, 일본의 방재관처럼 많은 예산과 거대규모의 시설을 갖출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의 제반 실정에 맞는 재난유형별 다양한 체험습득을 위한 시설과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생활민방위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풍부한 도서 및 영상자료를 통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은 안전체험관이 가야할 기본 전략이 될 것이다.

관련자료3. 소규모형 가족안전체험학교 사례



(피난 대피훈련: Air 매트사용 점프)

관련자료6. 태백 국민안전체험관 사례

